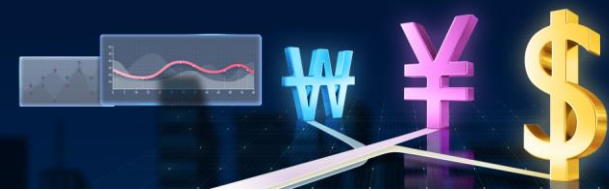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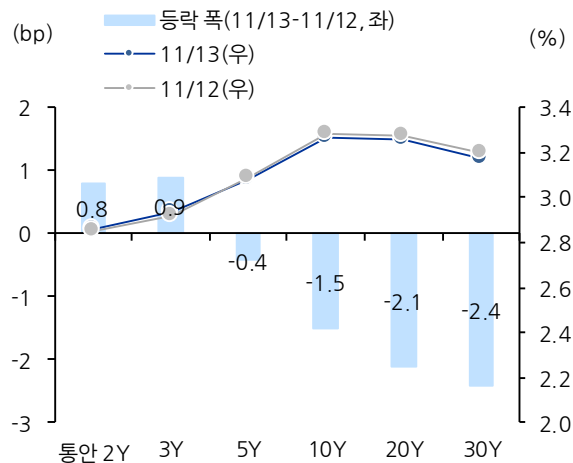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11/1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932%	0.9	9.8
	한국 국고채 10년물	3.267%	-1.5	6.4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3.5	35.9	36.9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5.72	-9.0	-29.0
	10년 국채 선물(LKTB)	114.18	-10.0	-62.0
	미국채 2년물	3.592%	2.2	-3.9
	미국채 10년물	4.121%	5.0	-3.9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52.9	50.0	52.8
	독일국채 10년물	2.688%	4.6	4.0
	호주국채 10년물	4.426%	4.6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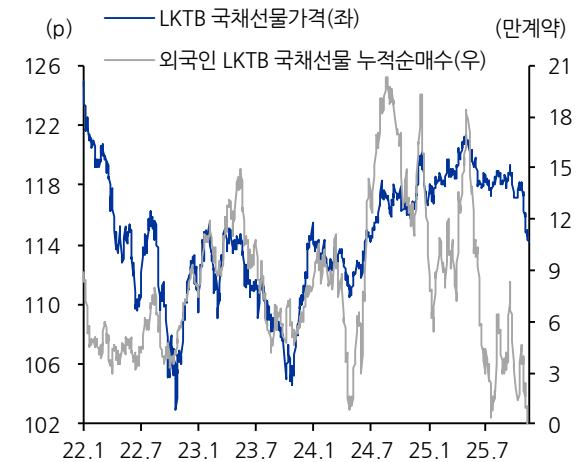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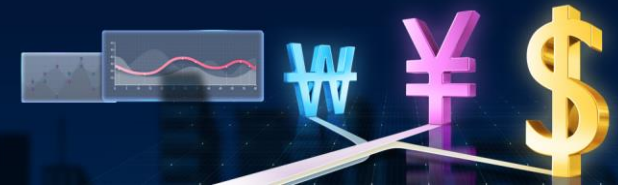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장단기 방향성 엇갈리며 커브 플랫트닝 마감. 국고 3년은 연고점 경신.
- 유가 급락, 전일 미국장 강세 등에도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 출발. 전일 이창용 총재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며 금리 상승폭 일부 반납하기도 했으나, 국내 기관의 의미있는 매수세가 확인되지 못했고, 투자심리가 워낙 훼손됨에 따라 손절이 계속되는 모습.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역시 오름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에 금리 상승 제어하기 어려웠음.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 섀다운 종료 및 입찰 등이 영향.
- 섀다운 종료 소식에 유럽장에서도 상승하던 금리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 이후 상승폭 확대. 완화적 성향을 가진 데일리 총재는 정책 변화의 방향이 중립적이며 12월 회의까지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발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반대 의견도 재확인.
- 이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선물 베팅이 점차 축소되며 금리 상승 견인. 국채 30년물 입찰 수요도 부진한 편으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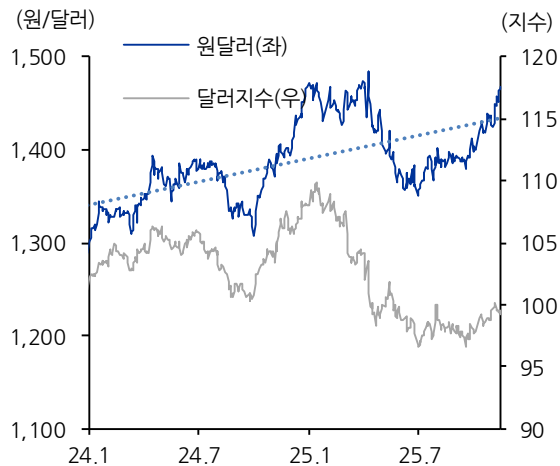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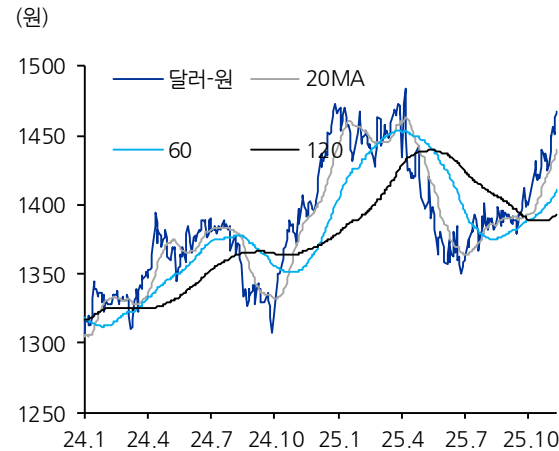
(단위: %, \$)

	11/13일	1D	1W	YTD
원/달러	1,467.70	0.1%	1.4%	-0.3%
달러지수	99.18	-0.3%	-0.5%	-8.5%
달러/유로	1.163	0.4%	0.7%	12.4%
환율 위안/달러(역외)	7.10	-0.2%	-0.3%	-3.2%
엔/달러	154.54	-0.1%	1.0%	-1.6%
달러/파운드	1.319	0.4%	0.4%	5.4%
헤알/달러	5.30	0.1%	-1.0%	-14.3%
WTI 근월물(\$)	58.62	0.2%	-1.4%	-18.3%
금 현물(\$)	4,163.41	-0.8%	4.6%	58.6%
비트코인(\$)	98,820.00	-2.9%	-2.4%	5.0%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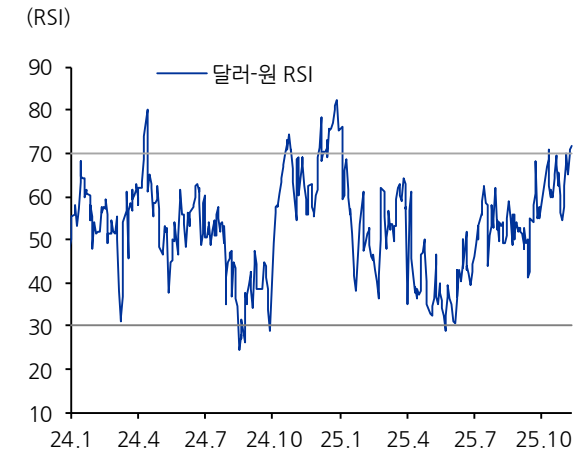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2.00원 상승한 1,467.70원에 마감.
- 전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BOJ 정책 협력 요구 발언으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도 강세. 달러-원은 이날도 상승 출발.
- 개장 후부터 엔화 약세에 연동하며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 이번에도 1,470원선을 별다른 저항 없이 돌파 후 장중 1,475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 당국 물량이 적극적으로 출회된 데다 전고점에 가까워지면서 국민연금의 환헤지 경계심도 커진 것으로 추정.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90선 초반으로 하락.
- 정부 섯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미국 증시는 AI 투심 약화로 급락했고 달러는 채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 전일도 연준 내 무살렘, 해맥, 카시카리 등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의 12월 금리 인하 신중론이 쏟아져 나왔음.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만 비둘기 발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섯다운 종료, 연준 매파 발언에 50% 수준까지 내려옴.